

“통통 튀는 탁구의 매력 보여드릴게요”

김수연 장성군 탁구선수 “계단 오르듯 차분하게 몸에 익히는 게 중요”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의 인기는 장성군에도 '탁구 붐'을 일으킨 모양이다. 장성군 탁구팀 김수연 선수는 “최근 들어 탁구 인기를 실감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탁구를 즐기고 계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처음 탁구를 배우러 오신 분들도 무척 재미있어 하세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연습하러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수연 선수가 탁구와 인연을 맺게 된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다. 이모부를 따라 탁구장에 갔는데 ‘통통 튀는’ 탁구공을 라켓으로 치는 게 너무 재미있어 보였단다.

그렇게 시작한 탁구가 학창 시절을 지나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지금은 장성군체육회에 소속되어 흥길동체육관에서 탁구를 가르치고 있다.

다양하다. 관전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 처음 배울 때 기본기를 잘 습득해야 한다. 김 선수는 “계단을 오르듯 차분하게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 한 마음에 앞서나가려 하다가는 기본기를 망가뜨려 다시 배워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전남체전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으로 기대되는 김 선수지만, 예상 성적에 대한 질문에는 겸손한 답을 들려줬다. 김수연 선수는 “다른 시군에도 훌륭한 선수와 팀들이 많아 성적을 예상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지금은 그저 공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장성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남체전이 탁구의 활성화, 나아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면서 “멋진 시합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64회 전남체전 탁구시합은 19~21일 오전 9시 30분 장성중앙초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없는 ‘마복동 탄약고 이전’ 결사반대

예산-행정력 낭비 ‘사회적 합의’ 소음피해지역 주민 의견 반영돼야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3일 ‘광주군 공항 이전 없는 마복동 탄약고 이전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제기된 ‘마복동 탄약고 이전 사업’ 재개는 광산구와 광산구민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광주 군 공항과 마복동 탄약고 이전을 별개로 추진하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를 뒤집은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약고만 별도로 이전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 공항뿐만 아니라 평동 포사격장 이전 역시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탄약고부터 이전하는 건 광산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속 요구해 온 보상금의 물가상승률

반영, 보상기준 개선 관련한 대책 마련과 합당한 보상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확정되어 탄약고와 함께 이전되도록 노력하는 게 광주시민과 광산구민을 위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약고 별도 이전은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폭탄까지 꺼안고 살아가는 국가적 폭력이다”고 성토했으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탄약고 이전에 대한 결사반대의 의사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마복동 탄약고 이전 사업 재개를 즉각 중단하고,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마복동 탄약고 이전과 함께 추진되도록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며, ▲광산구는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방부에 건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준형 기자**

정성 한스푼, 사랑 두스푼 “온정을 배달합니다”

생활개선강진군연합회, 정성이 담긴 반찬 전달

강진군의 봄날에 이웃사랑의 온기가 더해졌다. 생활개선강진군연합회(회장 김혜경)는 지난 2일 관내 읍·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따뜻한 공동체 정성을 실천했다.

이번 활동에는 생활개선강진군연합회 소속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아침 일찍부터 모여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이날 마련된 반찬은 봄철 대표 나물인 취나물, 단백질 보충에 좋은 장조림, 깔끔한 맛을 더해주는 물김치로, 균형 잡힌 영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메뉴로 준비됐다.

무리한 반찬을 강진군 각 읍·면의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나눔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나 식사 준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관심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생활개선강진군연합회는 지역 여성농업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농촌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나눔 활동에 앞장서며 다양한 봉사 및 교육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반찬나눔 또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이뤄졌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소중한 실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바쁜 농사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2백만원 기탁

전남 함평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지사장 서정진)가 함평군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함평군은 4일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가 지난 3일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2

백만원을 기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장학금을 전달하며 함평군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순천시주민자치협의회, 산불 피해지역 성금 200만원 기탁

순천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신광래)는 지난 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순천시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신광래 협의회장은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영광군, 산불 피해 경북지역에 구호물품 지원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물품 2,500만원 상당 지원

영광군(장세일 군수)은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구호물품은 경북 의성군의 산불피해 지역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쌀 500포, 응급구호 세트 200개 등 2,5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차량을 이용해 전달하였다. 이번 물품 지원에는 영광군 농축협, 지내농 영농

조합법인에서도 함께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재민을 위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주었다.

영광군은 영남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 공무원·기관(사회)단체·군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특별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도유의 손길이 절실한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긴급 구호에 쓰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예정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